

韓半島에 있어서 先史時代 海洋文化의 傳播經路

—先史時代 海洋族의 韓半島南端에의 渡來可能性에 關하여—

林 墩

A Course of Propagation of the Oceanic Civilization in the Pre historic Age to the Korean Peninsular.

Im Don

<目 次>

- | | |
|--------------------------|---------------------|
| 1. 序 言
(韓半島 定着文化의 概要) | 2. 韓半島에의 海洋文化 移入可能性 |
| | 3. 結 言 |

Abstract

Though it is known that human beings led a life depending on fishing and hunting in the neolithic age, a rich supply of food and rapid expansion of population started in the tillage age in which a productive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shell mound located at Dong-sam Dong, Busan, there is a stratum which contains relic used in the hunting and farming ages and is piled up with an upper and a lower stratum of accumulation, Considering from the above mentioned fact,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Oceanic Civilization' was settled in the Korean peninsular initially.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ed to trace the entering route of the 'Oceanic Civilization' into the peninsular in the neolithic age, studying reference books and materials.

1. 序 言 (韓半島 定着文化의 概要)

우리나라에 있어서 漁撈 또는 狩獵生活을 했던 採集經濟의 段階를 거쳐 그후 農耕生活 即 一般的으로 新石器時代로 알려져 있다. 農耕生活로 인한 生産經濟體制를 갖추게 됨에 따라, 불의 利用 以後, 人類生活史上一大革新을 일으켰으니, 食生活의 富裕과 人口의 急進의인 팽창을 보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 어있서는 釜山市 影島區東三洞貝塚의 遺物 包含層에서 이러한 生産經濟體制的

生活을 傍證할 수 있는 遺物이 出土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東三洞貝塚 出土 遺物에 대해서는 그 正式發掘報告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具體的인 分析 結果를 알 수는 없으나 中間分析에 따르면 東三洞貝塚의 文化期는 그 初期의 遺物로 이루어 採集經濟의 痕跡이 主流를 이루고 있는 反面 中期의 遺物에서는 生産經濟體制로 들어선 間接적인 證據를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採集經濟時代와 生産經濟時代를 이은 遺物包含層이 上下 堆積層으로 층첩 連續에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韓半島 定着文化의 始作은 新石器文化期로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여기에서 定着文化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經路를 거쳤든, 또는 어떠한 形態의 것이었든 간에 一但 韓半島에 移入되어 비록 그 文化가 周邊의 他文化와 복잡한 交互作用을 거듭하여 混成文化를 再生成했거나 또는 周邊 他文化의 優勢한 힘에 밀려 吸收 消滅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中 一部分이 그 命脈을 持續한 것을 말한다.

最近 韓半島內에서 舊石器文化를 追跡한 努力의 結晶으로 연세대학교 孫寶基教授가 韓半島內 舊石器文化의 存在性을 몇 군데서 確認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러한 舊石器文化는 아직까지 中石器文化→新石器文化와의 連繼性을 찾아 보기에는 미흡한 感이 있어 舊石器文化는 本論述에서 除外하였음을 밝힌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定着文化의 文化期的 上限을 新石器時代로 본다면, 그 新石器文化에서 海洋文化(南方文化)가 차지했던 比重은 어느 程度였을까?

事實上 韓半島에의 文化 移入에 海洋文化가 끼친 실적은 無視할 수 없으나, 最近 考古學 分野에서 이에 대해 論及되고 있음이 이분 뒷받침 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論議는 漸次 活氣를 띄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論述에서는 可能한 범위 안에서 既刊 參考文獻 및 論文 등의 資料를 分析, 檢討해서 先史 海洋族의 北上 移動經路를 더듬어 보려는 試論임을 밝히는 바이다.

2. 韓半島에의 海洋文化 移入 可能性

海洋文化는 先史時代에 있어서 어떠한 經路를 밟아 韓半島에 이르렀을까? 이 點에 대해서 追跡 檢討해 보기로 한다.

海洋文化의 移動經路를 살피는 데 있어서 먼저 險難한 大洋을 海洋族이 어떻게 건느 왔느냐 하는 것을 追究, 규명해 보아야 하겠다. 또 이 點이 바로 本論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이 機械力을 利用하는 快速船時代에 있어서도 海流나 潮流를 利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比較해 본다면, 船舶 航海技術上이나 經濟的 效果面에 있어서 莫大한 差異가 생기므로 우리는 이 點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海流는 船舶 航海에 있어서 커다란 影響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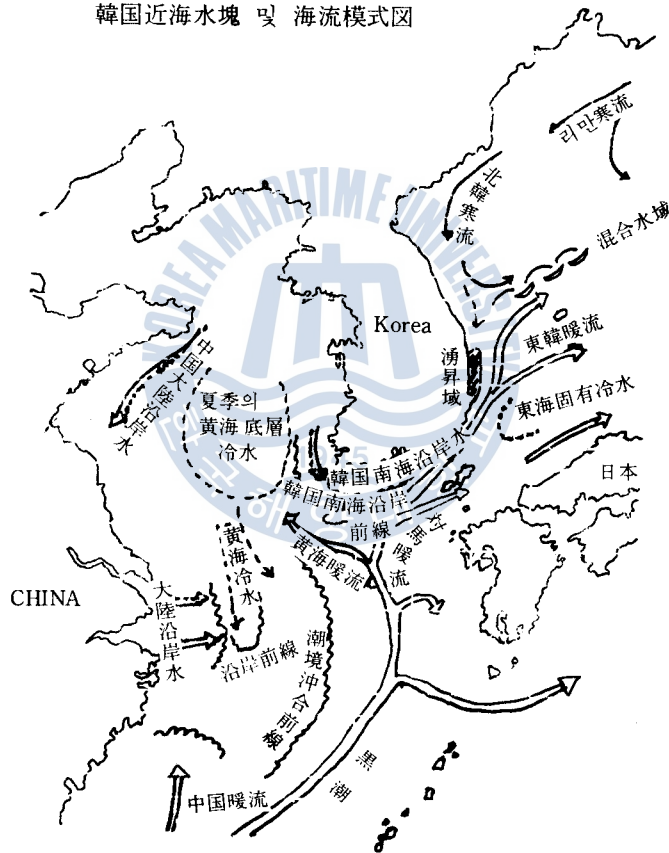
이러한 點에 着眼한다면, 機械力이 아닌 미미한 人力과 自然力을 빌지 않고는 航海를 할수가 없었던 先史人들에 있어서, 海流에 대한 依存度는 絶對的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風向 역시 이러한 海流에 못지 않게 先史時代 海洋族들에 있어서는 航海上 副次的인 原動力이 돼 주었을 것 이란 것도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海洋에 있어서의 風向은 一定한 것이 아니고 一年中 周期的으로 變化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크게 나눈다면 대체로 一定한 風系를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자면 北半球 海洋에 있어서는 中緯度上의 偏西風과 低緯度上의 貿易風이 있다. 海流의 循環도 이러한 風系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周知해 왔다. 風系·風速과 表面海流와의 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成立된 吹送流의 理論¹⁾이 바로 그것이다. 이 吹送流理論만 가지고 實際의 海流를 說明하기에는 그 普遍妥當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하나, 어떠한 吹送流理論을 先史時代 海洋族

※參考圖 I

韓國近海水塊 및 海流模式圖



1) 和達清夫, 「海洋の事典」, 東京堂出版, 1966, 136面, p. 331面に 依하면 폰드大學 교수 Vagn Walgrid Ekman (1874~1954)의 吹送流理論(1905), 北水洋의 水上 漂流의 方向이 바람보다 20-40° 程度 右偏하고 있는데서 종래의 海流理論에 地域自轉의 轉回力과 海水의 薄粘性 등을 導入하여 理論値와 觀測値와의 一致를 實測하여 그 結果를 說明한 것이다. 그 研究動機는 Fridtjof Nasnen (1861~1930)은 무람號에 依해 北極探險時에 永山의 漂流에서 風向과 海流의 方向같은 것이 一致하지 않음을 發見하고, 이것이 Ekman의 吹送流研究의 動機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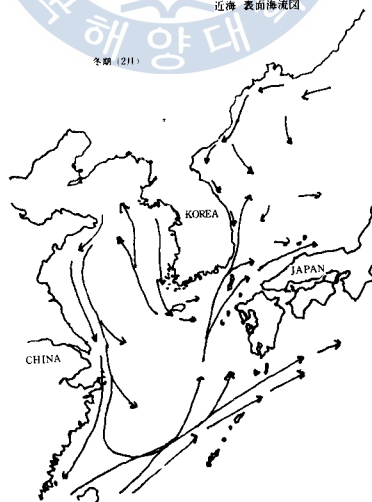
의 移動 및 航海經路를 追跡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暗示的인 실마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原始的인 航海術에 있어서 依存도가 컸다고 볼 수 있는 海流는 첫째, 우리나라로 이르는 海流와 둘째, 韓半島의 東·西·南海에까지 波及되어 海上交通에 영향을 주고 있는 海流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確實하고도 具體的인 그 發生原因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赤道 北回歸線 回流과 南支那海 環流가 合流하는 海域 即 Phiripine과 臺灣 사이의 海域에서 發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海流가 있는데 그것은 南方 海洋族들의 北上 航海에 있어서 絕對的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Kurosiho(黑潮)이다.²⁾ <海流圖 I 參照>

Kurosiho는 前記 發源 海域에서 臺灣 東쪽 海上을 지나 東支那海로 흘러 들어간다. 이 中 한 支流는 臺灣 東쪽 海上을 벗어나면서 中間暖流가 되어 中國大陸 沿岸쪽으로 向流하는 反面, Kurosiho의 主流는 大陸棚의 外緣을 따라 東支那海를 계속 北上하다가 日本 九州南端에 이르기 전에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 中 한 가닥은 日本 九州 南端 屋久島 西南 海上에서 屋久島 南쪽으로 東流하여 日本列島의 太平洋沿岸으로 흘러 드는데 이것이 Kurosiho의 主流이다. 다른 한 가닥은 東支那海에서 그대로 北上을 계속 하다가 濟州島 東南쪽 海上에서 우리 나라 西海쪽으로 흘러드는 黃海暖流와 對馬島쪽으로 흐르는 對島暖流로 갈라진다. 對島暖流는 또한 濟州島 東쪽 海上에서 對馬島 南端을 거쳐 東海의 日本列島쪽 沿岸을 따라 흐르는 第一分岐와, 大韓海峽을 거쳐 우리 나라 東南海上 即 釜山 東쪽 海上에서 갑자기 東쪽으로 轉向하여 日本列島 北岸 海上에 있는 隱岐島의 遠海를 通過한 뒤 能登半島 近海에서 第一分岐와 合流, 並行 北上하는 第二分岐, 그리고 韓半島 東岸을 스치는 第三分岐인 東韓暖流로 三分流한다.

東韓暖流는 慶尙北道 竹邊 近海에서 Tatar 海峽으로 부터 沿海州 外海를 따라 南下해 오는



2) 和達清夫, 黑潮(kurosiho), 「海洋の事典」, 東京堂 出版, 1966, 214~219面に 依하면 日本南岸에서 日本本州, 東方沖合에 걸쳐 東流하는 黑潮는 難破漂流하는 海流로 日本人은 알고있다. 「1925~27年 當時의 日本海本水路部 軍艦滿州가 日本南海에서 赤道海域까지 觀測한 以來, 黑潮가 알려졌다. 黑潮主流의 流速은 2~5속도, 幅 2속도 以上の 強流帶. 또 30海里程度가 된다. 黑潮海流의 起源原動은 洋上의 大規模 風系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리만寒流의 持續流인 北韓寒流와 충돌하면서 그 세력이 꺾인다. 그 뒤 東韓暖流는 北韓寒流와 混合하면서 東쪽으로 흐름을 바꾸어 混合水域을 形成, 橫流하면서 日本 能登半島 近海에서 對馬暖流의 主流인 第一分岐, 그 持續流인 第二分岐와 並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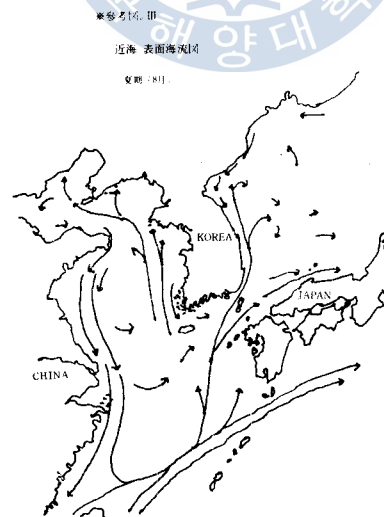
그런데 東韓暖流 中 一部の 勢力은 더욱 北上하여 咸鏡南道 近海까지 그 勢力을 펼치는데 이 東韓暖流의 持續流는 時季에 따라서 또는 해(年)에 따라서는 그 勢力에 消長의 差가 생긴다.

여름철에는 이 東韓暖流의 持續流는 咸鏡北道 淸津 外海에까지 그 勢力을 펼칠 때가 있으나 겨울철에는 慶尙北道 竹邊과 울릉도 사이 乃至는 江原道 注文津 外海까지가 東韓暖流 勢力의 限界로 돼 있다.

여기에 덧붙쳐 東海上에서 여름철에 가끔 濃霧가 생기는 것은 Kurosiho 海流의 支流인 東海暖流와 리만寒流의 持續流인 北韓寒流가 衝突하는데서 일어나는 自然現象인 것이다. 또 이렇게 暖流와 寒流가 混合水域을 이루는 海域에서는 一大漁場이 形成되는 것이다.

한편 北韓寒流의 持續流 中 一部 勢力은 對馬島까지 南下하다가 이곳에서 두 갈래로 分流한다 이 中 한 갈래는 日本列島 北岸을 따라 흐르는 對馬暖流의 持續流의 바깥쪽을 곁돌아 回流, 並行 北上하며 또 다른 갈래는 對馬島北쪽에서 下層流로 潛流, 南下하다가 濟州島 近海에서 다시 表面流로 浮上하여 韓半島 西海岸을 따라 北上하면서 Kurosiho의 支流인 黃海暖流와 角逐을 벌인다.³⁾ <海流圖Ⅱ 參照> 우리 나라 西海에 있어서의 暖流와 寒流의 이러한 角逐現象은 季節에 따라 그 消長에 큰 差異가 생긴다. 여름철에는 暖流가 優勢해서 그 세력이 遼東半島, 渤海灣에까지 펼치나 겨울철에는 寒流가 極盛해서 그 勢力은 仁川以北의 海岸까지 휩쓸다가 다시 西流하여 遼東半島→渤海灣→山東半島 等地的 海岸을 涉獵하는, 말하자면 黃海沿岸一帶를 反時計 回轉(anti-clockwise)하여 南下끝에 台灣海峽에 이르게 된다.⁴⁾ <海流圖Ⅲ 參照>

이와 같이 韓半島를 둘러싼 東·西·南海에는 暖流와 寒流가 交互 回流하고 있어서 時季에



따라 船舶 航海에 利點을 주기도, 또한 制約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季節에 따라 바

3) 국립水産振興院, 海流(韓國海洋便覽), 釜山, 1964, 18面.

4) 盧道錫, 「韓國文化의 地理的 背景」, 韓國文化史大系Ⅰ, 高大民族大化研究所, 1970, 57~60面.
 和達清夫, 黃海(Yellow Sea, Hwang Hai), 「海洋の事典」, 東京堂出版, 1966, 236面.

귀는 風向까지가 船舶 航海, 特히 近世에 이르기까지 海上 交通手段의 大宗을 이루었던 帆船의 航海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은 異論의 餘地가 없을 것으로 안다.

水運의 利를 取하는 것이 先史人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손쉬운 交通運送 手段이었을 것이라는 點은 近世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 交通運送의 實例를 찾아 보아도 能히 추정할 수 있는 일이다.⁵⁾ 特히 大量運送手段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韓半島의 地理的인 位置, 그 周邊 海域에서 形成되고 있는 海流, 그리고 時季에 따르는 風向 等은 옛부터 우리 韓半島에 移住 定着한 種族이 어떻게 이곳으로 移住해 들어왔고 또 韓半島에 그 文化를 어떤 經路로 傳播했으며 경우에 따라 混成文化를 어떻게 이루었을 것인가를 어렵잖이나마 推定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다고 大陸에서 陸路를 따라 韓半島로 流入한 文化의 傳播經路를 勿論 否定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大陸文化 역시 그 中 어떤 것, 例를 들자면 稻作文化가 海路를 거쳐 韓半島로 移入 傳播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오늘이고 보면, 水運의 利를 지니고 있는 海洋은 先史時代의 海洋族에게 그들의 文化를 北上 波及시키는 데에 充分한 可能性을 안겨 주었을 것이 아닐까?

또 三國遺事 및 三國史記의 記錄에서 우리는 海洋文化의 北上 傳播 可能性을 暗示받을 수 있다. 卽 印度의 阿踰陀國에서 韓半島 南端인 現 慶尙南道 熊東面 龍院里에 있는 望山島까지 海路를 거쳐 當到했고 가락국왕 金首露와 婚姻했다는 許黃玉에 관한 것⁶⁾과, 辰韓으로 가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海東의 始祖가 되었다는 仙桃聖母의 記錄,⁷⁾ 또 多婆那(玩夏國)의 舍達王 아들 脫解가 바다를 건너 韓半島에 이르렀다는 記錄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水運의 利를 取한 海洋文化의 北上 波及에 있어서 絕對的인 附隨要件이 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氣候條件과 風向을 들 수 있다. 自然力과 純全한 人力에만 依支해서 海洋을 넘나들었던 先史人들이 氣候的인 惠澤과 順風의 도움 없이는 茫茫한 大海를 航行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論及할 필요가 없다.

生存을 爲한 手段으로서 漁撈을 일삼아야만 했고, 또 人口의 漸次的인 增加로 因한 移住地 開拓을 위해서는 바다를 넘나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先史海洋族 일지라도, 現代의 大型 船舶조차도 꺼리는 荒天航海를 그들인들 어떻게 敢行할 수가 있었을 것이겠는가?

現在에 있어서도 濟州島의 漁夫나 海女들이 겨울철 한 때 禁漁의 習俗을 지키고 있다. 즉 이들은 太陰曆 2月 한 달 동안을 禁漁期間으로 設定하여 謹慎하고 있다. 濟州島의 漁村에서는 太陰曆 2月을 「영등달」←(燃燈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한 달 동안의 禁漁習俗과 並行하여

5) 朴元杓, 「開港九十年」, 釜山の 古今시리즈 第2, 釜山 太和出版社, 44~50面에 依하면 「京元線이 開通되기 以前 까지만 해도 元山, 咸興, 淸津을 中心으로 한 咸鏡南北道의 物産들은 東海岸을 따라 船便으로 大量 運送했고, 그것들은 釜山을 거쳐 南海岸→西海岸→仁川이라는 經路를 통하여 서울로 搬入됐었다는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6)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

「到 望山島立待, 申命神鬼子, 就乘帖,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依族, 而指乎北, 留天等 先舉火於島上……」

7) 三國遺事卷五, 感通等七, 仙桃聖好隨喜佛事條

「此是遺國之神, 公知之乎, 遂言曰, 古有中國帝室之女, 泛海抵辰韓, 生子爲海東始祖女爲地仙長在仙排山比其像也……」

8) 三國史記卷一, 新羅本記一, 脫解尼師今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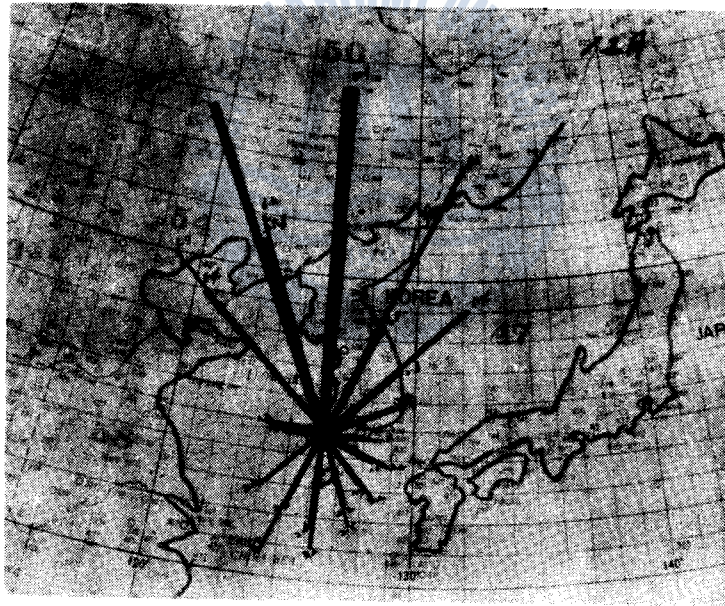
「脫解本 多婆那國所生也…… 其女不邊以帛裏卵並寶物, 置於櫃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漁村마다 太陰曆 1月 그믐날로부터 翫月(燃燈달) 20日까지 사이에 바닷가에서 굿을 벌인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濟州島 漁村에 있어서의 이러한 巫俗行爲는 避邪進慶의 一般의인 形態에다가 「영등할망」←(燃燈할미)⁹⁾이라는 바다의 女神에게 다음에 다가 올 漁撈期를 위한 豐漁를 비는 行爲가 加味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習俗은 濟州島 및 南海沿岸一帶 漁村社會의 土俗信仰이긴 하지만, 이것을 單純한 土俗信仰이라는 宗教的 儀式으로서만 解釋할 것이 아니라, 濟州島 南海沿岸 漁民들이 生活經驗에서 體得한 겨울철의 荒天航海, 또는 作業의 忌避意識이 累積 發生시킨 이들의 俗信이라고 推斷된다.

어떻든, 겨울철 荒天航海는 아무리 生活圈을 바다에서 뒀고 그래서 海洋에 挑戰했 던海洋族이었다 할지라도 주저했을 것임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12月 氣象圖(중앙광상대 부산지대 提出)



※ 10월부터 다음 3월까지 북풍계열 12월은 북~북서풍이 전체 풍향의 64.5%를 차지하고 풍속은 약 6.4m/s나 불어 해상의 파고가 높게 일어 소형선박의 항해가 거의 불가능하다.

9) 秦聖麒, 南國의 民俗(제주도 歲時風俗), 서울, 1976. pp.122~126面, 東國輿地勝覽 卷三八, 濟州牧, 風俗條.
「濟州俗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涯月居人得槎形如馬頭, 者飾以彩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止謂之燃燈」
東國歲時記에도 같은 記事가 있음

Kurosiho는 年中 언제나 변함 없이 Phillipine과 台灣 사이의 海域에서 發源하여 北上하고 있다. 先史人들의 貴弱한 航海術과 未知의 海域에 대한 너무나도 어두운 知識으로서 順風을 비롯한 氣象의 好條件없이 海流의 도움만으로 大洋을 건널 수 없었던 것은 다음의 季節風이라는 까다로운 制約을 살펴 본다면 쉽게 理解가 될 것이다.

그것은 北半球 中에서도 特히 아시아 大陸을 中心으로한 氣象條件을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즉, 年中 1月을 中心으로 하는 冬季 季節風을 볼것 같으면, 아시아大陸 內陸地方에서 發達하는 大陸性 高氣壓의 영향력은 大端하여 이 때의 主風向은 아시아大陸에서 赤道를 向하고 있다.

이러한 冬季 季節風은 바다를 來往함에 겨우 통나무배를 이용했을 先史 海洋族이 南方으로부터

7月 氣象圖(중앙광상대 부산지대 提供)



※ 5월부터 8월까지 남쪽에서 풍향이 북쪽으로 변하는 계절 7월은 남남동~남서풍이 57.1% 풍속 4.1m/s로서 이때는 주로 남에서 북으로 항해가 왕성하다.

더 北上 航海하는 데 있어서 最惡條件일 수 밖에 없었다.

反面에 7月을 中心으로 하는 夏季 季節風의 主風向은 赤道에서 아시아大陸內陸地方쪽으로 向하고 있다. 夏季 季節風의 이러한 主風向은 先史 海洋族이 南方으로부터 北上 移動해 오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 없는 自然의 惠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加해서 北上 向流하는 Kurosiho과는 航海上 自然의 推進力은 北上 航海를 하는 先史 海洋族에게 最適條件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上記 夏季 季節風의 主風向을 注意해서 살펴 본다면 매우 흥미롭고 注目할 만한 自然現象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7月을 中心으로 하는 前記 夏季 季節風中 그 一部가 太平洋쪽에서 아시아大陸 內陸地方으로 굽어 도는 南西風이라는 點이다. 이러한 南西風이야 말로 海洋族으로 하여금, 北上 移動을 하게 됨은 물론 그들의 새로운 定着地를 發見 開拓하는 데 있어 大自然의 施惠로서 마치 오늘날의 快速船이 갖추고 다니는 羅針盤과도 같은 구실을 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點에 대해 敷衍해 본다면 太平洋上에 있어서의 北半球쪽 南西風은 Kurosiho를 타고 北上 航海를 했던 先史海洋族이 設或 航海 途中 方向感覺을 잃었다. 하더라도 大陸 沿岸쪽 어디엔가 漂着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北上 向流하는 海流 Kurosiho와 여기에다 南西風을 안은 北半球 太平洋上에 있어서의 夏季季節風은 先史 海洋族에게 未知의 北方世界를 찾아 새로운 生活圈을 摸索하는데 安성마춤인 自然條件이 돼 주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自然界의 惠澤에 留念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海洋族의 北上 移動經路를 직접 踏査를 통해 追跡해 볼만한 것으로 여겨지나 아직까지 이러한 試圖는 없었으면, 또한 海洋族이 北上 移動해 왔을 당시 通過했을 것으로 믿어 질만한 經路를 하나 하나 살살이 踏査해 나감에 있어서는 莫大한 財政의 뒷받침이 없이는 거의 不可能하여 이러한 與件은 現實의으로 쉽게 解決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古代로 부터 海流, 또는 季節風을 利用하여 彼我的 交通이 頻繁하였고, 지금도 日本 北九州地方과 山陽, 山陰地方에서는 韓日國系石器와 土器가 多數發見되며 韓國系의 傳説, 風俗 言語等을 發見할 수 있다.

現代에 있어도 日本은 勿論 外國과의 交易이 우리 南部海域을 거쳐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Kurosiho 海流를 따라 北上한 海洋族의 移動은 有史以前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近世에 和蘭船하멜號가 難破되어 濟州島에 漂着한 것 역시 Kurosiho海流에 의한 것의 一例¹⁰⁾가 아닌가한다. 이리하여 韓半島 南端海岸地方一部에는 海洋文化的 色彩를 보이는 遺物들이 發見되고 있다.

3. 結 言

以上에서, 살펴 본 바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Kurosiho 暖流는 先史 海洋族의 北上 航海에 決定的인 自然 原動力이 돼 주었다.

2) 아시아大陸을 中心으로 하는 南西風 傾向의 夏季 季節風은 原始的인 航海術에서 先史 海洋族으로 하여금 安全하게 北上 航海를 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해 주었다.

以上과 같이, 韓半島南端一部 先史文化에는 南方에서 流入된 海洋文化的 要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本 論述에 있어서 資料의 未備와 더불어 理論 展開에 牽強附會한 點이 있다면, 將次 그것을 補完 修正해 나갈 생각이며, 또한 本 論述은 앞으로 계속 研究될 것이므로 全般的인 結言을 맺기가 곤란함을 附言해 두는 바이다.

10) 盧道陽, 「韓國文化的 地理的 背景」韓國文化史 I,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70, 57~61面.

參 考 文 獻

- 1) 金元龍：韓國考古學概說，서울，一志社，1972.
- 2) 金元龍：韓國考古學概論，東京，東出版社，1972.
- 3) 金正柱：九州と韓國人，東京，韓國史料研究所，1968.
- 4) 국립진흥원：韓國海洋便覽，釜山，1964.
- 5) 孔泳：海，漁況豫報의 理論과 實際，釜山 국립수산진흥원，1975.
- 6) 金元龍：韓國文化의 起源，서울，探求新書，201. 1976.
- 7) 金元龍，任考宰：南海島嶼의 考古學，서울大東亞文化研究所，1968.
- 8) 李丙壽，金載元：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1959.
- 9) 李丙壽，譯註：三國遺事，서울，龜書出版社，1973.
- 10) 金鍾權譯春：三國史記，서울，廣書出版社，1973.
- 11) 金東鎬：韓國橢目文土器의 研究，釜山，東亞大學校出版部，1968.
- 12) 有光教一，小林知生，篠遠喜彦：半島と大洋の遺蹟 東京 新潮社，1970.
- 13) 水野清一：世界考古學大系，8，南アジア，東京，平凡社，1961.
- 14) 全相運：韓國의 古代科學，서울，探求新書，104，1974.
- 15) 江坂の彌新：新版考古學講座 第9卷，東京，雄山閣，1971.
- 16) 金元龍：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第三冊 서울大學校，1967.
- 17) 和達清夫監修：海洋の事典，東京，東京堂出版，1960.
- 18) 江坂輝彌：繩文土器と 貝塚，繩文時代 I，東京講談社，1973.
- 19) 盧道陽：韓國文化의 地理的背景韓，國文化史大系 I，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1970.
- 20) 秦聖麒：南國의 民俗，서울，教學社，1961.
- 21) 朝鮮學會：朝鮮學會報14，서울，大學社，1959.
- 22) 金廷鶴：韓國民族形成史，韓國文化史大系 I，서울，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1970.
- 23) 金廷鶴：韓國の考古學，東京，河出書房，1972.
- 24) 藤田高，「橢目文樣土器の分布について」，青丘學叢2，東京，1930.
- 25) 三上次男，「朝鮮に於ける有文土器の分布とその文化の擴がりについて」，朝鮮學報 14, 1959.
- 26) 有光教一，「朝鮮橢目土器の研究」，京都 1963.
- 27) 劉漢德，「朝鮮石器時代研究の現況」，考古學手帖，東京，1965.
- 25) 金元龍編，「釜山朝島(아치섬)貝塚」，韓國考古學年報 I，서울大學校，人類考古學，1973.
- 29) 中山平次郎，「肥後國宇上郡 花園町岩古層宇會畑貝塚의 土器」，考古學雜誌8卷，東京，1918.
- 30) 江坂輝彌，「黑曜石」考古學講座第九卷，東京，1971.
- 31) 西谷正譯註，「朝鮮半島に於ける初期稻作」，考古學研究16-2，東京，1969.